

지역 이야기



완주군 화산면 익명 독지가 쌀 후원

완주군 화산면에 이름을 밝히지 않는 독지가가 2년째 쌀을 후원해 훈훈한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4일 화산면에 따르면 익명의 독지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화산면을 찾아 1가구당 쌀 40kg을 전해달라며 20포(14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독지가의 후원으로 화산면은 저소득 가정 20가구를 선정해 지난해 12월 화산면 직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쌀을 전달했다.

화산면은 저소득 다자녀 가정과 독거노인, 장애가 있는 어려운 세대들로 20가구를 선정했다.

도움을 받은 75세 어르신은 "쌀을 주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며 인사를 전했고, 장애인 가구의 김모 씨는 "겨울 내내 걱정 없이 밥을 먹을 수 있겠다"며 감사의 말을 건넸다.

김현순 화산면장은 "화산면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주는 독지가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이 잘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검산동복지센터, 복지 허브화 활성화 홍보물 제작 배부 '호응'

김제시 검산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운수)는 복지 허브화 활성화를 위해 뜻있고 특별하고 의미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배부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검산동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의 복지 허브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일선에서 노력 하고 있다. 과거에는 시각적인 홍보효과를 극대화한 전자파스티커를 제작해 큰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에 제작된 예로써, 복지활동수첩은 맞춤형 복지팀에서 직접 디자인을 고민하고 구상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기동대, 복지통장 등 민간단체에 배부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운수 검산동장은 "앞으로도 복지허브화 활성화 및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을 마쳤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도서 대출 1위 '신과 함께'

군, 도서 대출 조사... 웹툰 강세 속 소설·에세이 인기

지난해 완주군민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도서는 최근 영화로 제작돼 큰 흥행을 일으키고 있는 주요민의 '신과 함께(애니복스)'였다.

4일 완주군은 중앙도서관을 포함해 삼례도서관, 둔산도서관, 고산도서관 등의 2017년도 도서 대출실적을 분석해 공개했다.

일반도서와 어린이 도서로 구분됐으며 일반도서는 '신과 함께'가 1위, 어린이 도서에서는 이빈의 '엄마는 단짝친구'가 가장 많은 대출 실적을 기록했다.

일반도서 중 2위는 '2017 올해의 책 휴먼토크'로 완주를 찾기도 한 김재동의 '그럴 때 이용시조'가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전대식의 '그래도 사랑하라', 김수환 추기경의 영원한 메시지, 강풀의 '무빙: 강풀액션만화', 이기주의 '언어의 온도', 조남주의 '2021년 김지영' 등이 순위에 올랐다.

7위에는 이규희의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8위 박현모의 '세종이러면: 오래된 미래의 리더십', 9위 마천의 '외톨이들 1: 마천 新두협 장편소설', 10위 조정래의 '태백



산맥 (청소년판)'이 이름을 올렸다.

일반도서 중 1위와 4위에 웹툰이 오르면서 웹툰의 강세를 실감케 했다. 또한 소설, 에세이도 꾸준히 주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어린이 도서에서는 1위 '엄마는 단짝친구'에 이어 2위 허운미의 '마인드 스톨', 3위 이빈의 '인생 자두야'가 차지한 가운데 뒤이어 송도수의 '메이플스토리 오프라인



RPG', '수학도둑', 도기성의 '과학상식', 도래미의 '잠정고부신' 등이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오인석 문화예술과장은 "한 해 동안 사랑받은 베스트셀러를 비롯해 웹툰이 인기를 끌었다"며 "주민들의 관심사와 사회적 이슈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 도서를 확충, 많은 주민들이 도서관을 찾아 지적 호기심을 채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농기센터, 농촌지원 시범사업 접수

신기술 접목 영농인 육성 등 6개 사업 5억 5000만원 투입

김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8년도 농촌지원 시범사업을 적지 적소에 내실있게 추진하고 후계인력 양성을 통한 활기찬 농촌을 만들고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소득향상, 농장경영 전문 컨설팅을 통한 CEO 양성 사업을 남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농업인(법인), 마을을 선정하기 위해 희망 농가의 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2018년도에 추진되는 농촌지원 시

범사업은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 2개소 1억원, 농촌교육농장 품질향상 지원 4개소 5,000만원,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 1개소 5,000만원, 선도농업경영체 우수 모델화 4개소 8,000만원, 농산물 디자인 개발사업 2개소 2,000만원, 농산물 홍보공유 플랫폼 모델화 사업 1개소 2억5,000만원 등 총 6개사업에 5억 5,000만원이 투입되며 사업에 따라서는 지원대상이 제한되거나 자부담이

있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읍면동 산업부서나 농촌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에 따르면 농촌지원 시범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각 읍면동에 비치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농촌지원과로 사업신청을 하면 되고, 신청된 농가를 대상으로 2월중 현지평가를 실시한 후,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 적임자를 최종 선정하여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라고 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센터 설치기관 선정

완주군이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센터 설치기관으로 선정됐다.

4일 완주군은 2018년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센터 설치기관으로 선정돼 사업예산 1억8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국에서 완주군을 비롯해 강원도 홍천, 경기도 포천 등 총 3개 기관을 설치기관으로 선정했다. 1차에서 12개 기관을 심사하는 등 총 3차의 엄격한 절차를 거쳤으며 완주군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호평을 받았다.

사업비 확보로 구강보건센터는 내년 6월 삼봉지구에 들어설 완주군보건소 내에 194.40㎡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다. 치과 진료실을 비롯해 양치교실, 교육실, 구강보건사무실 및 치주센터를

배치함으로써 기능을 확대하고 포괄적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구강보건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사업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진료 기능까지 수행 가능해졌다. 특히 지역주민들에게 의치보철, 초기우식치료, 치주관리 등의 진료와 치아 홈 메우기, 스케일링, 잇솔질 교육, 불소도포 등 예방관리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의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경이 보건소장은 "구강보건센터 설치를 통해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구강보건센터는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인재양성과, 지구촌마을 방문 위문품 전달

김제시 인재양성과는 4일 관내 장애인시설 '지구촌마을'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장애인들을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최니호 인재양성과장 외 10여명이 방문해 쌀, 누룽지, 과일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시설 이용자와 관계자들을 위문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구촌마을은 김산동에 위치한 지적 장애인거주시설로 28명의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시설장 포함 12명의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시설로 이번 방문으로 장애인들에게는 사랑 나눔 위문 활동을 펼치고, 종사자들에게 대해서는 사회복귀 수행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이날 방문은 인재양성과가 전 직원 청렴교육 참여 및 다양한 청렴 시책 추진에 앞장서 청렴 마일리지 실적 우수부서 포상금 및 2017 안전 문화대상 국무총리 기관표창에 따른 인센티브 일부로 위문품을 마련하여 더 뜻깊은 시간이었다.



김성필 시설장은 "2018년 새해, 뜻깊은 방문으로 한 해를 시작하여 따뜻한 해가 될 거 같다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방문하여서 입소자들을 위로해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니호 인재양성과장은 "이번 위문품 전달로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희망과 용기를 북돋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어려운 이웃들이 훈훈한 새해를 보낼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 추진

김제시는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김제시는 축산농가의 보험가입에 따른 경제적 경감을 위하여 납입 보험료의 국비 50%, 지방비 25%를 지원하며 이에 따라 농가의 자부담금은 총 보험료의 25%만 납입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

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 관련 법인이며, 대상가축(16종)은 소, 말, 돼지, 닭, 오리, 경, 메추리, 양, 기(사슴, 양, 꿀벌) 및 축산시설물이다.

가입방법은 NH농협손해보험을 비롯하여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Advertisement for '진안고원' (Jin-an Goryeon) featuring fresh produce like cabbages and mushrooms. Text includes: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and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Advertisement for '진안고원 청령농산물 판매소' (Jin-an Goryeon Cheongryeong Nongsanmul Pansaleo) showing a busy indoor market scene. Text includes: '진안고원 청령농산물 판매소' and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마산업과 063-430-2951'.